

최근 니트웨어 패션에 나타난 '웰빙'의 영향 - 2000년 이후의 여성복을 중심으로 -

김 경 인

한성대학교 의상디자인 전공 부교수

The 'Well-Being' Trend and Its Impacts on the Current Knitwear Fashion

Kyung-In Kim

Associate Prof.,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2004. 10. 7. 접수: 11. 1. 채택)

Abstract

The influence of the 'well-being' trend on the every day life of our society can be found by recent books, articles, and magazin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ell-being trend and its effect on the current knitwear fash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well-being' trend is very different from the past life style and it will be a preceding life style in 21st century.

(2) The preference for organic food and the promotion of "colorful menu" came from the 'well-being' trend. And, the yoga, zen, meditation, aroma-therapy, spa, and massage are also under the influence of 'well-being' trend.

(3) The Neo-Hippie look and Neo-Vintage look are connected with the 'well-being' trend.

(4) The influences of 'well-being' trend on the current knitwear fashion are shown in the hand knitting (bulky knit & crochet), twin sets including cardigans, hand crafted details, natural colors, and natural materials.

Key words: well-being(웰빙), hand knitting(손뜨개), handcraft(수공예), twin set(트윈세트), natural(자연적)

I. 서론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 전반의 키워드 중 가장 관심거리를 끄는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웰빙(well-being)일 것이다. 의식주는 물론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 어느것 하나 웰빙 문화가 언급되고 있지 않은 데가 없다. '웰빙족'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매달리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 웰빙의 대표적 문화코드인 요가와 명상은 이들에 의해 크게 유행했고, 자연주의를 지향하는 친환경적인 실천 개념 역시 생활에 널리 보급되었다.

패션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방식, 사회 전반의 트렌드를 반영한다.

Corresponding author ; Kyung-In Kim

Tel. +82-16-721-9269, Fax. +82-2-760-4484

E-mail : kikum@hansung.ac.kr

질 높은 삶, 편안한 삶,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웰빙의 열풍은 패션에서도 반영되어 자연으로 가는 패션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한편 우븐에 비해 외관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니트 소재로 만든 니트웨어가 날이 갈수록 더 주목받는 것과 웰빙 열풍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웰빙의 개념 및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웰빙과 연관이 많다고 생각되는 패션 트렌드 및 최근 니트웨어 패션에 나타난 웰빙의 구체적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단행본과 학위논문을 위주로 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진자료 분석을 위해서 최근 수년간 발간된 패션 관련 잡지와 패션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II. 웰빙의 개념 및 영향

1. 웰빙의 개념

‘웰빙’은 말 그대로 건강한(well, 안락한, 만족한) 인생(being)을 살아가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¹⁾. 국내에 웰빙 개념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2002년말부터로 파악된다. 외국 라이선스 계열 여성 잡지들이 미국 등지에서 불고 있는 이 라이프스타일을 경쟁적으로 소개하면서 신문, TV 등의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웰빙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 안녕, 복지’ 등이다. 다시 말해서 삶의 질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여기에서 파생된 신조어인 ‘웰빙족’은 물질적 가치나 명예를 얻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보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는 균형 있는 삶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웰빙족의 근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세기 체코의 보헤미아 지방에는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랑하던 집시들이 많았는데, 당시 프랑스인들은 자유를 추구하는 그들을 ‘보헤미안’이라고 불렀다. 보헤미안의 정신적 흐름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미국의 상류층을 일컫는 ‘보보스(Bobos)’에 반영되

었다. ‘보보스’의 ‘보보’는 자본주의의 풍요를 상징하는 부르조아(Bourgeois)의 앞글자 보(Bo)와 유랑하던 집시들의 정신적 자유를 상징하는 보헤미안(Bohemian)의 앞 글자(Bo)의 합성어이다.²⁾ 21세기에 들어와서 웰빙족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원래 미국에서 웰빙은 반전운동과 민권운동 정신을 계승한 중산층 이상 시민들이 고도화된 첨단 문명에 대항해 자연주의, 뉴에이지 문화 등을 받아들이면서 파생된 삶의 방식으로 부각되었다. 이것은 60-70년대의 미국 히피리즘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웰빙의 대표적인 문화 코드인 요가나 명상은 60년대와 70년대 초 미국의 히피들에 의해 크게 유행했고,³⁾ 80년대 여피(Yuppie)족과 90년대 보보스(Bobos)족의 라이프스타일에도 웰빙은 중요한 요소였다. 2000년대의 웰빙족은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하되 정신적인 여유와 자연친화적 삶의 태도를 추구하며 자신만의 삶을 즐기며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존중한다. 이들은 물질적 가치보다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는 균형있는 삶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웰빙은 앞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인류의 생활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2. 웰빙이 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

1) 웰빙 푸드

오늘날 현대인은 다양한 먹거리로 풍요로운 생활 문화를 누리고 있지만, 성인병이 어린이들에게까지 발병할 정도로 그 부작용은 심각한 상태이다. 그 원인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농약, 항생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유기농 산물을 먹자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⁴⁾

최근 유기농 재배에 의한 농산물을 가공한 제품들이 유명 식품업체들에 의해 선보여 판매되고 있다. 이들 유기농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3-5배정도 비싸지만,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주부들에 의해 잘 팔리고 있다.⁵⁾ 아직 한국에는 ‘컬러풀한 식단’의 개념이 거의 없지만 미국 등지에서는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여러 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과일의 색소 성분이 영양소와 흡사한 역할을 하

므로, 다양한 천연색소에 포함된 여러 영양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색깔이 포함된 식단을 차려야 한다는 이론으로부터 나온다.⁶⁾ 그 예로서 토마토, 딸기 등의 붉은 색을 내는 리코펜은 항산화제로 항암효과와 심혈관 질환예방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컬러풀한 식사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웰빙'이라고 할 수 있다.

2) 웰빙 건강

웰빙은 말 그대로 건강한 인생을 살자는 의미이므로, 최근 들어 건강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명상이나 요가뿐만 아니라 향기요법, 웰빙 마사지, 웰빙 다이어트, 반신욕(또는 스파) 등이 널리 유행하고 있다.

명상을 통해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잡념을 없애고 정신을 하나로 통일해 무념무상의 경지에 몰입하게 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한다. 또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도 정신을 맑고 쾌적하게 만들어 뇌파를 α 파 상태로 만든다. 명상을 위해서는 우선 호흡을 낮추어야 하는데, 호흡을 가슴에서 배로 낮추는 것이 바로 '단전호흡'이다. 명상은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인 '코티졸'치를 낮추어 준다고 한다.⁷⁾

요가는 인도의 고유한 심신 수행법으로, 몸의 작용을 관찰하여 인체의 균형과 조화를 찾는 것이 목표이다. 요가 동작은 몸의 각 부위가 균형을 찾고 이를 유지하도록 고안된 것인데, 요가 동작인 이완은 몸 전체에 휴식을 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 준다. 또한 요가시 '의식확장'이라는 명상을 통해 모든 생각을 초월해야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몸이 건강해진다.⁸⁾

아로마 치료법(Aroma therapy)은 향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식물의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여 심신을 편안하게 해 주고 질병을 치료하는 요법이다. 아로마 요법은 가장 오래된 자연요법 중 하나인데, 아로마 향초나 포트틀을 이용해 향기를 음미하는 방향욕, 코로 흡입하는 흡입법, 아로마 목욕 등 여러 종류가 있다.⁹⁾ 향기를 맡는 후각신경은 뇌를 환기시켜 심신의 건강과 활력을 찾게 하고 미용효과도 있다.

3. 웰빙이 최근 패션에 미친 영향

1) 웰빙 소재

최근의 웰빙 트렌드는 의류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옥이나 황토 등의 건강과 관련된 천연 성분이 함유된 헬스 웨어 또는 메디칼 웨어를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2004년 프리미에르 비종에서 주목받은 대나무 섬유는 구김이 덜하고 통풍성이 좋아 속옷과 여름 신사복 소재로 각광받고 있으며, 땀 냄새 방지에 효과적인 녹차 소재를 사용한 팬티와 런닝 셔츠등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¹⁰⁾

한편 캐주얼 스포츠 세대를 대상으로 한 최첨단 기능성 소재 역시 웰빙 패션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가공 기술을 접목해 만든 신소재들은 웰빙 붐을 타고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신소재로는 수영복에 주로 사용되는 라이크라(탄성력을 지닌 소재), 피트니스복으로 적합한 쿨맥스(땀을 빠르게 흡수해 쾌적한 소재), 등산용 자켓으로 적합한 고어텍스(특수 방수소재), 익스트림 스포츠웨어를 위한 써모라이트(가볍고 따뜻한 소재) 등이 있다.¹¹⁾ 올가을 처음으로 상품화된 아쿠아트렌스는 피부의 수분을 빠르게 흡수해 외부면으로 이동시켜 발산시키는 고기능성 원단이다. 최근에는 스포츠 웨어 브랜드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최첨단 기능성 소재에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적인 디테일을 더해 웰빙족의 시선을 끌고 있다.

2) 패션 스포츠룩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웰빙 바람을 타고,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기존의 디자인보다 더욱 젊어 보이고 입기 편안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¹²⁾ 트레이닝복 상의처럼 앞에 지퍼가 달린 블라우스, 허리부터 밑단까지 지퍼장식을 단 바지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올가을 샤넬, 돌체 앤 가바나 등의 명품 브랜드들은 트레이닝복이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트레이닝복 디자인에 실크 리본이나 레이스를 달아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이들은 지나치게 화려하고 부담스러운 스타일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길거리 패션'과 같이 활동하기 편한 의상들이다. 많은 명품 브랜드들

은 스포츠룩을 응용한 의상들을 선보였다. 샤넬은 농구, 테니스 등의 여러 스포츠를 테마로 한 의류와 액세서리를 선보였고, 디올도 젊은 감각의 골프웨어를 출시했다.

트레이닝복은 원래 운동복이지만 편안한 소재로 만들어져 평상시에도 착용을 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패션 스포츠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¹³⁾ 이와같은 패션 스포츠룩은 편안함과 패션 그리고 기능성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

3) 웰빙 운동복

날이 갈수록 레포츠 종류가 다양화해 지면서 운동복도 요가라인, 피트니스라인, 조깅복, 복싱라인, 익스트림(인라인스케이트)라인, 에어스포츠허라인, 골프라인, 재즈댄스라인 등으로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유명 스포츠브랜드들이 다양한 종류의 '웰빙 운동복'을 선보이고 있다.

웰빙의 대표적 문화코드인 요가는 몸과 마음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만큼 복장이 몸에 조이지 않고 색상 또한 자극적이지 않은 것이 좋다.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의 요가라인은 통풍성이 좋고 움직임이 편안한 신축소재로, 색상은 회색, 흰색 등의 무채색과 파스텔 계열이며 몸에 붙는 듯한 상의와 약간 여유 있는 하의가 기본 아이템이다.¹⁴⁾

이번 가을에는 스포츠 의류에 도시적인 느낌을 가미한 '아웃트로룩' '아웃도어'와 '메트로'의 합성어)이 인기를 더할 전망이다.¹⁵⁾ 웰빙문화와 주5일 근무제 실시의 영향으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멀티패션이 유행하고 있다. 최근 제일모직은 'SS311'이라는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를 선보였는데, 이는 일년 365일 중 일요일을 빼 나머지 평일 311일에도 스포츠를 즐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젊은 층을 겨냥해 화려한 원색의 스트리트 캐주얼과 기능성 아웃도어를 접목시켰는데, 땀 흡수가 잘 되는 '쿨맥스 알파'와 안감에 땀이 차는 것을 막아 주는 '쿨에버'라는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FnC코오롱(주)은 SUV(Sports Utility Vehicle) 디자인을 응용한 브랜드 '안트벨트(Antwelt)'를 내놓았다. 독일어로 '다른 세상'을 뜻하는데, SUV차량을 즐겨 타는 젊은 층을 겨냥한 캐주얼 스포츠 브랜드이다. 이것은 SUV처럼 레저활동과 일상생활 모두에 적합하다

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4) 웰빙 신사복

국내 유명 신사복 브랜드인 LG패션 마에스트로가 올가을 새로운 패턴의 '웰빙 신사복'을 출시했다.¹⁶⁾ 신사복도 운동복 못지않게 착용감과 실루엣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패턴개발팀에서 기존 고객의 체형을 분석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백벌의 샘플을 제작하고 평가했으며, 새로운 신사복 출시를 위해 설계부터 작업 방법, 부자재 개발 등 전 제작공정을 개선하였다. 이렇게 탄생된 뉴 패턴 신사복은 거의 직선에 가까웠던 기존 신사복의 어깨라인과 달리 7mm 정도 앞쪽으로 어깨를 감싸도록 한 인체공학적 재단 기법을 적용해 대체로 어깨가 앞쪽으로 굽은 우리 남성들의 체형에 잘 맞도록 했다. 아울러 수작업 시침공정을 통해 박음질 횟수를 줄여 입었을 때 어깨를 누르는 무게감을 줄여 훨씬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Ⅲ. 웰빙 이미지의 패션 트렌드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완전한 트렌드로 자리잡은 웰빙의 열풍은 친환경주의, 자연주의, 에콜로지 등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 일으키며 많은 상품에 적용되었다. 본래 생태학의 뜻을 지닌 에콜로지는 오염되어 가는 지구환경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훼손되지 않은 상태의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동시대인들의 공감대가 표현된 것이다.¹⁷⁾ 환경을 의식하는 태도와 행동은 20세기 후반부터 서구의 저항문화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에콜로지 경향은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유행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전개되어 온 우리의 의식이 반영된 것인데, 이는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중시하는 정신세계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 자연에 대한 향수와 소박하고 단순했던 지난 시절의 생활방식에 대한 동경을 지향하는 레트로 스타일은 에콜로지 경향에 적절한 표현수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¹⁸⁾ 여러 종류의 레트로 룩 중에서 웰빙 트렌드와 관련이 많은 패션경향은 네오 히피룩과 네오 빈티지룩이라고 생각된다.

1. 네오히피 룩(Neo-Hippie Look)

현대산업사회의 물질우선주의, 자연 파괴 등에 회의를 느낀 현대인들의 심리는 환경보호운동의 확산과 함께 자연스럽게 옛것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게 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복고풍이 주목받게 되었다. 그 중에서 1960년대의 히피풍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변형되어 네오히피 패션이라는 테마로 전개되었다. 60년대의 히피문화에서는 기성세대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부정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 구조 전반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 이러한 히피문화의 특성으로 대량생산된 의복을 거부하여 낡고 오래된 중고 의류를 착용함으로써 산업사회 물질문명에 대한 반작용을 표현하였다. 또한 인공적인 것에 대항하여 자연적인 것, 수공업적인 것이 시도되었다.¹⁹⁾

패치워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재활용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로, 낡은 옷의 부분들을 봉제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기도 하였다. 히피들의 자연에 대한 관심은 자수, 손뜨개 등의 수공예기법과 자연섬유, 천연염료, 반전과 평화를 상징하는 꽃문양의 선호현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²⁰⁾ 에스닉 룩과 로맨틱한 전원풍은 히피룩의 중요한 기본 스타일이었는데, 이것은 1970년대의 보헤미안 스타일로 이어졌다. 1990년대 이후의 네오히피 룩에서는 이전보다 소재와 디자인이 더욱 고급화되어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데, 니트 소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같은 자연친화적 생활방식은 자연, 편안함,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웰빙 개념과 유사하기 때문에, 네오 히피룩은 웰빙 트렌드에 적절한 표현수단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2. 네오빈티지 룩(Neo-Vintage Look)

1980년대 이후로 문화 전반에 걸쳐 과거에 대한 향수가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왔다. 따라서 서적이나 음반 못지않게 중고 의상도 많이 평가받는 '중고품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²¹⁾ 이에 따라 중고 옷가게들이 많이 생기고 중고 웹사이트²²⁾들도 활성화되어 있다.

빈티지 패션의 정의를 살펴보면, 벼룩시장에서

구매한 오래된 옷을 서로 조합하여 입는 스타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젊은 연령층에서 널리 유행이 된 스타일이다. 이에 상응하는 의미인 앤티크 패션(antique fashion)은 말 그대로 골동품 패션을 의미하며, 이는 옛것에 대한 향수가 더 부각되는 패션을 일컫는다.²³⁾

본래 좁은 의미의 빈티지 패션은 과거의 복식을 그대로 입는 개념인데, 최근 패션 트렌드에서 사용되는 빈티지 패션의 개념은 과거 특정 시대의 스타일로부터 이미지를 얻어 빈티지의 외양만을 따온 새 옷을 생산하거나, 색이 바랜 듯한 효과를 내는 염색기법 또는 구김효과 등을 이용한 재생 패션의 개념이다. 이러한 네오 빈티지룩은 기존의 빈티지룩에 비해 한결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진 느낌을 준다.

빈티지 패션의 형성배경에는 현대문명의 이기인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반발 내지는 회의를 자리 잡고 있다. 즉 현대인은 현재상황에 비해 인위적인 요소가 작용하지 않은 과거를 동경하는 심리로부터 새 것이 아닌 오래된 구제품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또한 패션을 통한 개인의 자아표현의 욕구가 강해지면서 희소 가치가 있는 다시 말해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빈티지룩이 꾸준히 유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과거에 대한 향수는 현재보다 단순했던 과거의 생활방식을 동경하는 웰빙 개념과 유사하기 때문에, 네오 빈티지룩은 웰빙 트렌드에 적절한 표현수단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IV. 최근 니트패션에 나타난 웰빙의 영향

1. 대표적 아이템

1) 핸드니팅 스웨터

현대산업사회의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반항의 표현으로써, 패션에서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드를 추구하게 되어 대량생산된 것보다는 손으로 만든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더구나 최근의 웰빙 열풍으로 입기 편안한 니트웨어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특히 손뜨개방법으로 제작된 니트의

상들이 국내의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로우 게이지의 울이 굵고 얼기설기 엮은 느낌이 나는 손뜨개 스웨터, 목도리, 모자, 병어리 장갑 등의 '별키니트'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로우 게이지의 손뜨개 니트는 내추럴 스타일의 거친 외관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조직감이나 표면감이 주는 텍스처효과가 기계가 아닌 손으로 뜨개질하여 만들어진 것을 확실하게 해 준다. <그림1>은 대바늘뜨기로 만든 빅 사이즈 가디건으로, 굵은 울의 고르지 않은 스티치로 되어 있다.

별키니트가 널리 유행하고 있는 이유는 웰빙의 영향으로 '혈렁하고 편안한 스타일'이 선호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들 손뜨개 니트는 고급스런 원사의 사용과 새로운 니팅 테크닉으로 꾸뛰르 감각을 표현하여 세련되고 자연스러운 럭셔리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럭셔리'와 '내추럴'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되지만, '럭셔리'한 감성은 수공예적이고 독특한 이미지에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의미로, 반면에 '내추럴'한 감성은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자연주의라는 히피 감성을 기반으로 보헤미안의 감각을 표현하고 있지만, 스타일 자체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으로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2>는 변형된 리브 조직으로 핸드니팅한 빅터블 스웨터인데, 과장된 목부분 디테일과 몸판으로 연결되어 있는 돌만 슬리브가 인상적이다.

<그림3>는 2003/2004 A/W Marc Jacobs 작품으로 새로운 니팅 테크닉으로 손뜨개한 칼라달린 가디건이다.

한편 핸드니팅 스웨터는 엄마의 장롱 깊은 서랍 속에서 꺼낸 옛 옷을 연상시키는 투박하고 따뜻한 감각의 복고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²⁴⁾ 꽃무늬, 기하학적무늬, 눈의 결정체 등의 빈티지 무늬 또는 케이블(파배기), 다이아몬드 형태나 리브조직의 손뜨개 스웨터는 그리운 시절을 회상시킨다.

<그림4>은 Laura Biagiotti 작품으로 케이블 조직이 들어간 빈티지풍의 원피스와 머플러이다. 이와 같은 대바늘뜨기 외에도 코바늘뜨기(크로셰)로 만

든 잔잔한 무늬의 니트는 여성스럽고 우아하고 한편으로는 섹시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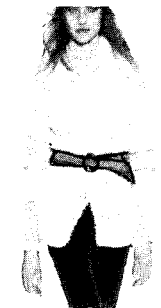
<그림5>은 코바늘뜨기로 만든 니트 원피스와 코트로,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낸다. <그림6>은 John Rocha의 2004년 S/S 컬렉션 작품으로, 프릴모양의 디테일로 코바늘뜨기에 의해 입체감을 주었다. 최근들어 멋쟁이 뉴요커들과 파리지엔드들 사이에서 코바늘 뜨개질이 유행이라고 하는데,²⁵⁾ 그 배경



<그림1> Catherine Malandrino 04/05 W, Collezioni Trends No.68, p.107



<그림2> Jesus Del Pozo 04/05 W, Collezioni Trends No.68, p.108



<그림3> Marc Jacobs 03/04 A/W, Collezioni Trends No.64



〈그림4〉 Laura Biagiotti 03/04 A/W, Collezioni Trends No.64



〈그림5〉 Joaquim Verdu 03/04 A/W, Collezioni Trends No.64



〈그림6〉 John Rocha 04 S/S, Collezioni Trends No.66, p.116

에는 유년시절의 향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새로운 유행은 디자이너들에게 까지 전파되어 수많은 크로세 아이템이 유명 컬렉션에서 선보이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예술적인 크로세 니트웨어가 임희희, 루비나, 송자인 등의 유명 디자이너들에 의해 컬렉션에 등장하고 있다.

2) 트윈 세트와 가디건

1950년대의 유행 아이템 중의 하나인 트윈 세트는 라운드 넥 스웨터와 버튼업 가디건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영국 스코트랜드의 고급 캐시미어 브랜드인 Pringle사가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유행하게 되었다.²⁶⁾ 트윈 세트는 영국 스타일 패션의 대표적 아이템으로, 20세기를 대표하는 클래식 디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다양한 종류의 트윈 세트와 가디건이 유행하였는데, 단색이나 아가일 체크무늬, 꽃무늬등의 자카드 조직으로 된 것은 주로 평상복으로 입혀 졌고, 자수, 애플리케, 씨퀸스, 라인스톤, 모조진주, 비즈 등으로 장식된 것은 주로 이브닝웨어로 입혀 졌다.²⁷⁾

1990년대 이후 유명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에서 현대적 감각의 트윈 세트나 가디건을 선보여 왔는데,²⁸⁾ 21세기에 들어 와서 특히 사회 전반적인 웰빙 트렌드로 인하여 꾸준히 유행되고 있다. 〈그림7〉는 Clements Ribeiro의 2001년 A/W 작품인데, 메리노 울소재의 클래식한 트윈세트로, 폴카도트 무늬를 인타샤 기법으로 넣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림8〉은 기장이 짧은 볼레로 스타일로, 프렌치 소매 아래쪽으로 얇은 토시가 연결되어 있다. 〈그림9〉은 영국 Pringle사가 2003/2004 A/W 런던 컬렉션에서 선보인 캐시미어 스웨터인데, 영국 전통문양인 아가일 체크무늬의 자카드조직으로 올가을 유행하고 있다. 특히 2002년 S/S 컬렉션부터 편안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가디건이 주목받고 있고, 2004년 S/S부터는 웰빙의 영향으로 자연주의가 가미된 로맨틱 스타일의 가디건과 트윈니트가 유행하고 있고, 지난 여름부터 볼레로 스타일의 하이웨이스트 가디건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도 소매와 밑단 앞여밈에 프릴 장식이 있거나 리본으로 앞여밈을 하는 등 여성미를 풍기는 가디건들이 인기다. 〈그림10〉는 리본으로 앞여밈 처리한 볼레로 스타일의 가디건이다. 이와 같이 90년대 이후 재현된 트윈 세트와 가디건은 소박한 느낌과 편안한 착용감으로써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게 된 현대인의 사상이 표현된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자연에 대한 향수와 인간미를 되찾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편안한 여유로움과 자연 친화적 삶을 추구하는 웰빙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림7〉 Clements Ribeiro, 01 A/W, 「Knitwear in Fashion」, p.18



〈그림8〉 David Valls, 03/04 A/W, Collezioni Trends No.64



〈그림9〉 Pringle 03/04 F/W, Fashion News Vol.86, p.129



〈그림10〉 Blumarine, 04 S/S, Collezioni Trends No.66, p.115

2. 수공예적 디테일

2004 F/W 컬렉션 이후로 럭셔리와 수공예적인 이미지가 강조되면서, 소재의 키워드는 ‘크라프트(Craft)’로,²⁹⁾ 자수, 아플리케, 핸드 스티치, 비즈, 시퀀스, 리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수공예 기법이 디테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수공예적 기법은 과거 히피 스타일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수작업은 기계작업에 의해 대량생산된 니트웨어보다 더 개성있고 고급스러운 니트웨어 제작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림11〉은 니트아닌 다른 소재로 복고풍 장미 무늬를 아플리케 처리한 소매없는 스웨터와 리브 조직의 머플러이다. 〈그림12〉는 동양적 여미의 가디건인데, 목둘레선 주위에 리본 문양의 시퀀스를 부착하였다. 〈그림13〉는 금색 비즈로 장식된 브이네크 가디건이고, 〈그림14〉은 가디건 가장자리와 바지 옆선을 흰색 스트링으로 핸드 스티치 처리하였다. 〈그림15〉는 대바늘뜨기에 의한 터틀넥 스웨터와 원피스인데, 가슴 아래쪽에 굵은 리본으로 장식하였다.

또한 유명 디자이너들이 빈티지 풍의 솔이나 판초, 귀마개가 달린 모자, 길이가 긴 목도리, 워머 등을 이용한 토탈룩을 선보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수공예적 니트 소품들이 유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공예적 디테일은 인공적인 것의 반대인 자연적인 것의 표현수단의 하나로써, 웰빙 트렌드의 영향으로 최근 눈에 띄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소재 및 색상

최근 니트웨어에는 인위적 느낌을 피하기 위해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케시미어, 알파카, 양고라, 모헤어 등의 가벼운 천연소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손뜨개 니트에는 100%모사외에도 울레이온사, 울케시미어 혼합사등의 다양한 소재가 사용된다. 또한 시각적 볼륨감과 다채로운 표면감을 주기 위해 트위스트얀, 부클레얀, 슬럽얀 등도 쓰인다.

손뜨개의 벌키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이 게이지의 얇은 트윈세트나 원피스 등의 럭셔리 니트

에는 가공하지 않은 듯한 느낌의 천연소재 즉 모사, 면사, 린넨, 비스코스 등이 주로 사용되고, 광택 있는 메탈사와 같은 팬시안도 쓰인다. 한편 2004년 S/S부터 주름 또는 구김이 있는 니트 원단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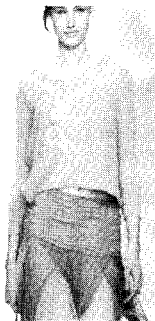
분양으로는 70년대풍의 빈티지 무늬, 즉 멀티칼라의 줄무늬나 꽃<그림16>, 새<그림17>, 나비 등의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은 자카드 패턴이 많은데, 이는 개성있고 자유로운 이미지를 표현하게 해 준다.

<그림18>은 Missoni의 2004/2005년 F/W 컬렉션 작품인데, 스웨터와 가디건의 몸판이 기하학적 패턴으로 되어 있다.

2003년 S/S에 유행하던 니트웨어 색상으로는 흰색과 밝은 계열의 파스텔 색조가 강세였고, 2003년 F/W에는 빈티지 무늬의 지속으로 미드 톤이 유행이었고, 2004년 S/S에는 어두운 사회 분위기와 상반되는 밝고 채도가 높은 색상과 달콤하고 화사한 느낌의 파스텔 색조가 유행인데, 이는 자연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웰빙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림11> Cecilia Benetti 02/03 F/W, Maglieria Italiana N.133, p.74



<그림12> Dries Van Noten, 03/04 A/W, Collezioni Trends No.64



<그림13> Louis Vuitton 04 S/S, Collezioni Trends No.66, p.120



<그림14> Tomaso Stefanelli 03 A/W, Maglieria Italiana. N.134, p.110



<그림15> Miriam Ocariz 04/05 W, Collezioni Trends No.68, p.125



<그림16> Apriocot 03 S/S, Maglieria Italiana N.134, p.14



〈그림17〉 Sportmax 05/06 A/W, Collezioni Trends
No.68, p.128



〈그림18〉 Missoni 04/05 F/W, Collezioni Trends
No.64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 전반의 최대 관심사인 웰빙이 우리 생활영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여러 문헌과 신문, 잡지를 통해 알아보고, 웰빙과 관련이 많다고 생각되는 패션 트렌드인 네오 히피룩과 네오 빈티지룩에 관하여 알아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여성 니트웨어 패션에서 볼 수 있는 웰빙의 영향이 무엇인지를 2000년 이후의 국내외 패션잡지와 패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자료로부터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적 가치보다는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의 균형있는 삶을 추구하는 웰빙은 기존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21세기를 주도해 가는 인류의 삶의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웰빙이 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으로, 우선

식생활에서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유기농 재배에 의한 농산물의 선호, 유기농산물을 가공된 식품의 인기, 과일과 채소의 천연색소에 포함된 영양성분 섭취를 위한 '컬러풀한 식단' 캠페인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건강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커져, 웰빙의 대표적 코드인 요가나 명상뿐만 아니라 아로마 치료법, 각종 마사지, 스파 또는 반신욕, 웰빙 다이어트 등이 널리 유행하고 있다. 패션에서도 천연성분이 함유된 소재나 첨단 기능성소재가 주목받고,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의류에 평상복의 개념을 더한 스포츠 케주얼 룩이 유행이다. 또한 해외 유명 브랜드들도 기존의 디자인보다 젊어 보이고 입기 편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셋째, 현대산업사회의 물질우선주의에 반대되는 자연친화적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히피 패션에서 유래되는 네오 히피룩과 현재보다 단순했던 과거를 동경하는 심리로부터 구제품을 입는 빈티지 패션에서 유래되는 네오 빈티지룩은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웰빙 트렌드에 적절한 표현수단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최근 니트웨어 패션에 나타난 웰빙의 영향으로는 헐렁하고 편안한 스타일의 선호에 따른 벌키 니트, 즉 대바늘 뜨기에 의한 로우 게이지의 손뜨개 니트를 들 수 있다. 대량생산된 것보다는 손으로 만든 것을 선호하여, 고급스런 원사와 수공예적 니팅 테크닉으로 꾸뛰르 감각의 자연스러운 럭셔리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손뜨개 니트는 자연주의라는 히피감정과 옛날 옷을 연상시키는 복고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스럽고 우아한 코바늘 뜨기(크로췌)에 의한 니트웨어도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공예적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최근 웰빙의 영향으로 유행하는 다른 니트 아이템으로 트윈셋트와 가디건을 들 수 있는데, 이는 50년대 스타일이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현된 것으로, 소박한 느낌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노력이 표현된 것이다. 특히 금년에는 길이가 짧은 볼레로 스타일의 가디건을 비롯하여 자연주의가 가미된 로맨틱 스타일의 트윈니트가 유행하고 있다. 또 웰빙의 영향으로 니트 패션에서도 애플리케, 비즈, 자수 등의 수공예적 기법의 디테일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캐시미어를 비롯한 천연소재와 자연을 모티브로 한 빈티지

문양, 미드 톤의 내추럴 색상과 파스텔 계열의 색상이 선호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웰빙의 열풍은 자연주의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할 수 있는데, 우븐에 비해 외관이 자연스러운 니트 웨어는 웰빙의 영향으로 그 수요가 늘어 가는 추세이다. 최근 니트웨어 패션에 나타난 웰빙의 구체적인 영향은 실루엣, 아이템, 디테일, 소재, 문양, 색상 모두에 있어서 자연주의적 경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 니트웨어로 카테고리를 한정시켰는데, 다른 카테고리 패션에서의 웰빙의 영향에 관한 후속연구도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황수관 (2004). 웰빙건강법. 제네시스 21, pp.14-15.
- 2) Brooks, D., 형선호 역 (2001). 보보스. 동방미디어, p.13.
- 3) McDermott, C. (2002). *Made in Britain*. London: Mitchell Beazley, pp.76-77.
- 4) 류병호 (2004). 웰빙생활생식. 예림미디어, pp.1-6.
- 5) 조선일보. 2004년 8월 26일. D5면.
- 6) 조선일보. 2004년 9월 24일. E2면.
- 7) 박명윤 (2004). 부모가 꼭 챙겨야 할 청소년 웰빙 건강. 이유, p.38.
- 8) Ibid., p.39.
- 9) Ibid., p.289.
- 10) Vogue Korea. (2004. 7). pp.103-104.
- 11) Ibid., p.104.
- 12) 조선일보. 2004년 8월 26일. D3면.
- 13) 스포츠서울. 2004년 9월 17일. 26면.
- 14) Ibid., p.25면.
- 15) 조선일보. 2004년 8월 26일. D3면.
- 16) 스포츠서울. 2004년 9월 17일. 25면.
- 17) 장희숙 (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Retro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9.
- 18) 전소영 (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콜로지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1.
- 19) 문진 (1990). 20세기 후반의 Anti-Fashion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7.
- 20) 임은혁 (2002).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6-37.
- 21) Tolkien, T. (2000). *Dressing up Vintage*. New York: Rizzoli, p.7.
- 22) <http://www.pieceunique.com/>
- 23) 고현진 (2001). 빈티지 패션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2), p.290.
- 24) Dallas, S. (2002). *Vintage Knits*. New York: Fireside, p.7.
- 25) Vogue Korea. (2004.7). p.108.
- 26) McDermott, C. (2002). Op. cit., pp.72-73.
- 27) Tolkien, T. (2000). Op. cit., pp.32-33.
- 28) Black, S. (2002). *Knitwear in Fashion*. London: T&H, p.15.
- 29) 백천의, 이은영 (2002). 니트웨어의 패션 경향 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4(2), p.134.